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

전국비 2배 ↑...결혼·양육 50여개 사업 추진 배경 공공산후조리원 2026년 상반기 준공·조리비 지원도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2023년 합계출산율 1.65명을 달성해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0.72명, 전남 0.97명, 영광 1.65명으로 영광군이 전국 합계출산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아

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임을 재차 입증했다. 이처럼 군이 앞선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017년부터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함께 나눠왔고, 난임부부·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확대, 청년 창업·취업 지원, 농공단지·산업단지 투자유치 등을 취약가구 가구 지원과 일

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정책으로는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월 최고 15만원, 최장 3년) ▲임산부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0만원~최대 15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이용료 70% 감면) ▲산생아 양육비 지원(첫째 500만원~여섯째 이상부터 최대 3천50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 6개월) 등 결혼부터 양육까지 아우르는 총 5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이 2023년 합계출산율 1.65명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영광군 제공>

또한 군은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에 선정돼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영광군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장거리 산후조리의 불편 해소와 조리비용 경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쾌적한 시설

과 수준 높은 산후조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후조리비 5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 하반기에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청년층 교류의 장이 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육아 거점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종만 군수는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지역사회 영광에서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나주시가 농촌 일손돕기 참여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지속가능 농촌' 나주시,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기반 시설·빈집 정비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6곳 마을 선정...2029년까지 총 24곳 목표

나주시가 귀농·귀촌한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원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마을 환경 정비에 착수한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인 농촌 거주자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마을 6곳을 선정해 '귀농·귀촌 선도마을'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농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입, 정착을 돕고 인구감소,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민

선 8기 역점 정책으로 발굴했다. 선도마을에선 귀농·귀촌인, 원주민의 생활 편의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마을 기초기반시설 조성, 빈집정비, 경관개선,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비된 빈집은 농촌 일손돕기 참여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귀농·귀촌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읍·면 마을 대상 자율공모를 통해 올해 마을 6곳을 선정했다. 오는 2029년까지 연간 6곳씩 총 24곳 마을을 선정

할 방침이다. 사업 첫 해 선정된 마을은 산포면 송림·산재, 문평면 서원(동원2리), 남평읍 우진(우산 3리), 동강면 복용(옥정3리), 공산면 송정(가송리) 마을이다. 해당 마을엔 2028년까지 3년간 마을별 최대 20여명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된다. 윤병태 시장은 "귀농·귀촌 선도마을은 잠재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귀농·귀촌인 유입을 촉진하는 민선 8기 핵심 농정"이라며 "쾌적한 마을 경관 조성은 물론 귀농·귀촌 이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되살아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홍환기자



해남 군민광장에 65m 바닥분수 들어선다

음악분수 등 새단장...8월 준공예정

해남군이 청사 앞 군민광장(사진)에 바닥분수를 조성한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 군민광장에는 지난 2002년 조성된 원형 분수대 등이 있으나, 2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신청서 개청 이후 진수 공간으로서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군민친화형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바닥분수 조성은 군민제안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는 숙원사업으로 기존 분수대를 바닥형 분수로 리모델링하고, 안전성을 개선해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수형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특히 바닥분수는 조명과 음악이 분수 물줄기와 동시에 제어되는 최신 공법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물놀이는 물론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해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의 원형 분수를 해남군화인 동백꽃을 모티브로 한 둥근모양의 바닥분수로 바꾸고, 아래쪽으로 물줄이 이어진 선형분수도 바닥을 보강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한편 조명과 음악이 함께하는 총 65m 길이의 바닥분수를 조성하게 된다. 조성 공사는 이달 착공해 8월경 준공 예정이다. /해남=박필용기자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할인·한도 유지

완도군은 4일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이 축소됐음에도 완도사랑상품권 10% 구매 할인과 구매 한도를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매 한도 유지 결정은 치솟은 물가로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와 군민의 가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 7월부터 발행된 완도사랑상품권은 꾸준히 판매액이 증가해 현재 2천100여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500여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정책 발행액을 늘려 각종 정책 수당 및 지원금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등 4종이며 상품권 구입 할인율은 10%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종이, 카드·모바일형 합산), 연간 500만원이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여원이상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정책 발행 상품권은 가맹점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완도=윤보현기자

서해지방해경, 청년인턴 38명 모집

11일부터 신청...서해해경청·소속 경찰서 근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38명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용 분야는 행정이며 기관별로는 ▲서해경서 6명 ▲목포해경서 6명 ▲군산해경서 6명 ▲여수해경서 6명 ▲완도해경서 5명 ▲부안해경서 4명 ▲해

양경찰교육원 5명을 모집 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직무 및 정책참여 경험을 제공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채용된 인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주5

일 40시간 근무하게 되며, 청년인턴 경력자가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 될 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유사 경력으로 반영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응시 원서는 이달 11일부터 전자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며,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4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나라인턴(www.gojobs.go.kr), 서해해경청(www.kcg.go.kr/seohaecgh/main.do) 홈페이지 게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함평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 발굴

정책심의회서 57개 사업·981억 심의·확정

함평군은 4일 "최근 2024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심의회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장 등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올해 농림축산식품 주요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57개 사업 981억 원을 상정해 심의·확정했다. 의결된 사업은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2025년도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2024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별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상자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심사해 보조 사업의 투명성

을 높였다. 이어 농업분야에 대한 건의사항과 농정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마련했으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의 군수는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 단체·심의회 위원에게 감사하다"며 "심의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으로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결된 보조사업을 조기 추진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중점 사업을 집중 발굴·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김연수기자



무안군, 해양수산사업 25개 확정

수산조정위원회 개최...53억 지원 계획

무안군은 4일 "최근 2024-2025년 해양수산 사업 선정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2024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 2025년 해양수산사업 우

선순위 결정, 2024-2025년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 계획 수립 반영에 관한 사업 등을 결정했으며, 위원은 수산 관련 기관·수협 관계자, 어업인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올해 사업은 이상 수온 대응지원, 양식시설현대화,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

업 등 25개 분야에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 추진할 노후기관 대체사업 등 12개 분야는 전남·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심의에서 확정된 올해 사업은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통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창립·발기인 총회

초대 회장에 광대석 신안군복지재단 이사 추대

신안군은 4일 "최근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맞춤형 복지협력망 조성 및 복지 사업을 위해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창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발기인 12명이 참석해 초대 회장으로 광대석 신안군 복지재단 이사를 추대하고,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취지, 정관, 운영 규정 심의, 2024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임원 선출 등을 의결했다. 광대석 회장은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초대 회장으로서 군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관, 단체,

기업 등을 회원으로 영입해 복지협력망을 구축,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 창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1004명 신안민의 복지사업을 조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신안, 가고 싶은 신안'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복지 통합 협력망을 구축하고 지역 복지 안전망 만들기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서류 등록 및 복지법인설립 신고를 거친 후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신안=양홍기기자

